

2009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과장)

1. 2009년 국내 경제동향

금년의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파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금융위기 재발 우려 등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해외언론에 의한 한국경제 위기설이 반복되는 등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정책공조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도 2/4분기 이후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실물경제도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노력 등에 따라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여 한국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언론의 시각도 우호적으로 선회되었다.

정부의 추경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과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극단적인 경기침체는 면했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출 호조세 유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설비투자 확대, 고용여건 개선 등 민간부문에서의 자생적 회복력 확충 또한 절실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 구조로 인하여 이번에도 외환위기시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을 거울삼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적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또한 금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이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 한해로 세계 각국이 최근 기후변화의 본격화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 환경·자원·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녹색산업에서 찾고 있고 환경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제고 등과 관련된 핵심 녹색기술의 선점이 절실하며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우리 시멘트업계에서는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여기고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2009년 국내 건설동향

지난해 하반기에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국내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건설지표들은 급락을 거듭하였으며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22년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극심한 부진을 경험하였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SOC부문의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주택공급 등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것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택수요의 극심한 위축과 더불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계속 연기한 요

〈표-1〉 연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구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50,281	53,861	65,212	38,462	23,439	86.2
	상업용	23,368	32,570	35,739	33,265	19,407	68.3
	공업용	13,576	16,813	16,351	18,504	9,041	56.8
	교육사회	9,862	11,340	12,268	13,588	9,109	79.1
	기타	14,419	18,687	21,387	16,839	12,297	91.3
구조별	철골조	110,203	131,064	147,838	117,843	71,088	75.5
	조적조	1,073	1,626	2,176	1,950	1,484	88.1
	목조	229	474	750	819	676	98.1
	기타	1	107	193	46	45	108.2
합계		111,506	133,271	150,957	120,658	73,293	75.9

※ 자료 : 국토해양부

인이 작용한 때문이다. 하반기부터는 신규허가 및 사업승인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DTI 규제 완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으로 8월 이후 건축착공면적이 2자리수 증가를 보이는 등 최악의 상황은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허가면적은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로서 건설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이나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착공시기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이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기가 가장 유리한 1/4분기 또는 2/4분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규칙적으로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년의 건축허가 면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48.3%↓), 2월(34.8%↓), 3월(10.9%↓), 4월(49.0%↓), 5월(37.1%↓), 6월(2.4%↓), 7월(29.1%↓), 8월(7.5%↓), 9월(31.4%↓), 10월(29.5%↓)으로 1~10월 누계치는 73,293천㎡로 전년동기의 96,534천㎡보다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물량이 급증한 2007년 이후 2년 연속 큰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의 일시적 증가도 추석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10월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용도별로는 주거용(23,439천㎡, 13.8%↓), 상업용(19,407천㎡, 31.7%↓), 공업용(9,041천㎡, 43.2%↓), 교육사회용(9,109천㎡, 20.9%↓), 기타(12,297천㎡, 8.7%↓)으로 공업용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 또한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수도권이 32,809천㎡로 30.6% 감소하였고 지방은 40,484천㎡로 17.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축허가의 동수에 있어서도 금년 10월까지 171,920동이 허가되어 전년동기의 192,902동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착공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적을 집계한 건축착공면적은 건설경기 동향지표로서 건설경제동향, 자재수급 동향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통상적으로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2/4분기에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건축착공시기의 결정이

〈표-2〉 연도별 건축착공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31,503	28,433	32,744	15,663	16,755	130.8
	상업용	21,764	20,970	25,171	23,620	14,349	70.8
	공업용	13,720	15,080	16,154	16,640	8,244	59.1
	교육사회	6,992	7,530	8,683	8,965	6,590	104.4
	기타	10,208	12,857	13,898	10,306	9,981	118.5
구조별	철골조	83,006	83,382	94,573	73,123	54,227	90.4
	조적조	975	1,086	1,326	1,364	1,061	89.0
	목조	205	365	591	665	595	106.0
	기타	1	37	160	42	36	94.4
합계	84,187	84,870	96,650	75,194	55,919	90.6	

※ 자료 : 국토해양부

날씨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며,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4/4분기 및 1/4분기에는 착공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금년의 건축착공면적을 보면 먼저 용도별에서 주거용(16,755천㎡, 30.8%↓), 상업용(14,349천㎡, 29.2%↓), 공업용(8,244천㎡, 40.9%↓), 교육사회용(6,590천㎡, 4.4%↓), 기타(9,981천㎡, 18.5%↓)으로 1~10월 누계치는 55,919천㎡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의 착공이 늘어난 것은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2008년중에 미분양주택의 증가와 금융대란으로 주거용착공이 52.2% 감소한데 따른 통계적 반동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별 실적은 수도권이 24,047천㎡로 14.4% 감소하였고, 지방은 31,872천㎡로 5.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표-2〉)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실질금액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의 감안이 필요하고, 대규모 건설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월별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통계와 함께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주는 선행지표로서 국내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 10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은 72조 860억원으로 이미 2007년에 비해 9.0% 감소했던 2008년의 동기과 비교해 볼 때도 0.3% 줄어들어 지난해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30조 5,120억원으로 전년대비 36.3% 감소한데 비해 공공부문은 39조 2,610억원으로 전년대비 90.6% 증가하여 민간부문과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35조 2,190억원으로 전년대비 29.1%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수요의 위축에 따른 것이며, 토목공사는 36조 8,150억원으로 전년대비 63.7% 증가하여 2007년의 27.5%와 2008년의 14.0%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은 공공·토목의 강세와 민간·건축부문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수

시멘트의 소비는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어 건설

〈표-3〉 연도별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21,825	20,460	28,695	31,320	39,261	190.6
	민간	58,975	66,550	77,554	65,294	30,512	63.7
	제조업	8,117	9,740	10,615	16,423	6,388	52.7
	비제조업	50,858	56,810	66,939	48,871	24,124	67.5
	민자	2,493	3,888	5,968	5,550	1,948	51.1
	국내외국기관	196	103	285	157	365	2,236.6
공사종류별	건축	60,215	69,480	82,321	68,006	35,219	70.9
	주택	42,434	52,752	58,397	43,366	23,320	75.6
	비주택	17,781	16,728	22,924	24,640	11,899	63.1
	토목	23,089	21,396	30,027	34,187	36,815	163.7
	전문공사	185	125	154	128	52	52.3
합계	83,489	91,001	112,502	102,321	72,086	99.7	

* 자료 : 통계청, 최근년 「건설업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총기성액의 54%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외적요인인 일기(날씨)도 건설경기 못지 않은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 발생하는 태풍은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데 금년은 11월까지 발생한 22개의 태풍 가운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는 없어 다행이었으나 강수량은 11월까지 1,542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 1,320mm 보다 소량 늘고 전년동기간의 1,330mm와 비교할 경우에도 강수량이 약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과 11월은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기조건은 전년과 평년 수준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2.6%↓, 2/4분기 0.3%↓, 3/4분기 1.6%↓, 4/4분기 10.8%↓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3.2% 감소한 49,000천톤으로 예상된다.〈표-4〉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10~11월이 연중 성수기에 해당하고 3/4분기와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 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8.7%, 2/4분

〈표-4〉 2009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9,606 (97.4)	593	10,199	9,875 (97.6)	140	10,015	1,266
2/4 분기	14,136 (99.7)	693	14,829	14,847 (103.1)	183	15,030	1,457
상 반 기	23,742 (98.8)	1,286	25,028	24,722 (100.8)	323	25,045	
3/4 분기	12,587 (101.6)	548	13,135	12,647 (98.6)	225	12,872	1,193
4/4 분기	12,671 (89.2)	766	13,437	13,331 (93.2)	252	13,583	1,320
하 반 기	25,258 (95.0)	1,314	26,572	25,978 (95.8)	477	26,455	
합 계	49,000 (96.8)	2,600	51,600	50,700 (98.2)	800	51,500	

* 주 :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크링카 수출 2,200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기 29.1%, 3/4분기 24.0%, 4/4분기 28.2%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7.8%, 하반기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요별 · 품종별 출하실적

금년 시멘트 내수의 수요별 실적은 10월까지 40,366천톤 중 민수가 39,953천톤으로 99.0%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0%인 413천톤에 그쳐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2008년의 99.3%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수비중이 높은 것은 공공공사의 자체수급이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된 데 따른 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에도 대북 수해복구용으로 관수 공급한 200천톤을 제외할 경우 이미 2006년과 2007년의 민수의 비중이 각각 99.0%, 99.2%에 달해 관수의 1% 미만의 시대에 진입하였다.〈표-6〉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7,808천톤으로 93.7%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93.1% 보다 0.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의 벌크화율을 보인 지난해의 93.3%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5〉 최근 10년간(2000년~2009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구성비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4.7	60.8	106.0	74.7	118.5	119.3	111.6	116.5	95.6	92.3	95.8	100.3	96.1	116.4	120.2	101.4	112.7	104.4
구성비	4.8	5.1	8.8	18.7	9.9	9.9	9.3	29.1	47.8	7.7	8.0	8.3	24.0	9.7	10.0	8.5	28.2	52.2

〈표-6〉 연도별·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월		
					2009년 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수	45,651	47,852	50,221	50,284	39,953	96.9
	관수	635	534	580	353	413	144.4
	민수비중	98.6	98.9	98.9	99.3	99.0	
품종별	포장	3,870	3,744	3,725	3,373	2,558	89.8
	벌크	42,416	44,642	47,076	47,264	37,808	97.8
	벌크화율	91.6	92.3	92.7	93.3	93.7	
합계	46,286	48,386	50,801	50,637	40,366	97.3	

※ 자료 : 국토해양부

시멘트 벌크화율 추이를 보면 1970년 3.0%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 21.3%, 1990년 68.5%, 2000년 88.9%, 2008년 93.3%로 나타나 매년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규모 건설공사는 물론이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 형태로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표-7〉

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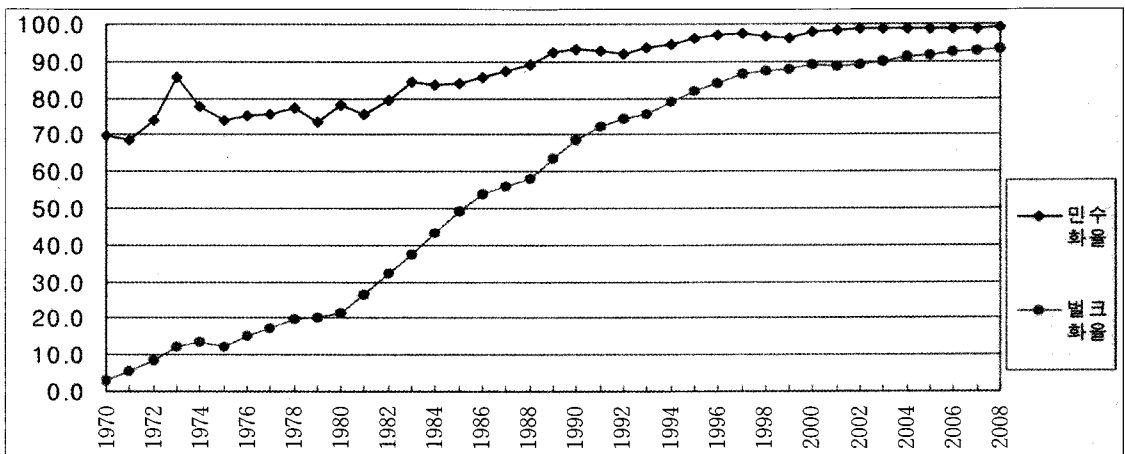
시멘트는 원재료인 석회석을 광산에서 채광하여

분쇄 및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크링카로 만든 다음 석고 등의 첨가제와 같이 미분쇄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진다. 먼저 반제품인 크링카 생산은 시멘트 내수 감소 뿐만 아니라 수출도 큰폭의 감소를 보여 전년보다 3.8% 줄어든 45,0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별로는 1/4분기 8,396천톤(16.1%↓), 2/4분기 13,132천톤(5.7%↓), 3/4분기 11,472천톤(4.7%↓), 4/4분기 12,000천톤(3.6%↓)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9,875천톤(2.4%↓), 2/4분기 14,847천톤(3.1%↓), 3/4분기

〈표-7〉 연도별 벌크화율 및 민수비중 추이

(단위 : %)



12,647천톤(1.4%↓), 4/4분기 13,331천톤(6.8%↓)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50,7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의 감소폭이 적은 이유는 내수와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도 같이 줄어든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72.7%로 예상되어 전년의 75.6%는 물론이고 업계 최대 가동율을 보였던 1997년의 94.7%와 비교할 경우 업계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다. 수출입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국의 주택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한때 전체 수출물량의 54%(2003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의 16.3%에서 금년 들어 20.6%로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물량 자체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시멘트 시장에서의 미국 수입수요 감소와 유럽의 잉여물량 또한 시장 여건이 좋은 아프리카 시장으로 물리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수출 경쟁 심화로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21국으로 전년의 31국과 비교시 10개국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 아시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출 물량 증대가 올해는 반대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아프리카 15개국으로 2,575천톤의 수출이 금년은 11월까지 8개국 1,455천톤에 그쳤으며 아시아는 6개국의 수출대상국은 유지되었으나 1,299천톤으로 지난해 보다 781천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표-8>)

품종별로 보면 시멘트는 2,600천톤으로 전년대비 13.5%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크링카도 2,200천톤으로 전년보다 큰폭으로 감소한 37.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물량에서 시멘트와 크링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크링카 우위에서 금년은 다시 시멘트 우위로 회귀하는 수출 양상에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표-9>)

<표-8>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8년	2009. 1 ~ 11
미 국	1,059	854
일 본	787	603
나이지리아	814	532
방글라데시	825	492
케냐	143	383
칠레	226	278
아이보리코스트	147	265
에콰도르	77	134
모잠비크	25	92
베냉	171	76

* 주 : 크링카 포함

2009년 사별 수출실적은 크링카 수출 포함 동양 930천톤(44.3%↓), 쌍용 3,120천톤(13.3%↓), 라파즈한라 740천톤(39.3%↓), 한일 10천톤(전년수준)으로 추정된다. 쌍용의 수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 하였으나 이를 대신해 중남미 지역에서 수출 확대를 이룬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내륙사와 연안사간 교환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쌍용과 성신간 발생하였으며 물량은 98천톤으로 전년의 83천톤보다 18.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의 수출 형태를 보면 벌크가 2,587천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포장은 13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시멘트 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폭 감소한 800천톤(59.7%↓)으로 추정된다. 일본산은

<표-9>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E)
크링카	1,945	2,210	2,219	3,494	2,200
시멘트	4,025	3,987	4,123	3,006	2,600
합 계	5,970	6,197	6,342	6,500	4,800

〈표-10〉 연도별·국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E)
중 국	1,905	1,659	1,271	522	116
일 본	1,498	1,539	1,646	1,463	684
합 계	3,403	3,198	2,917	1,985	800

684천톤으로 전년의 1,463천톤 보다 53.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산은 116천톤으로 전년의 522천톤 보다 77.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표-10〉)

이는 국내수요 부진속에 금년 상반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원화 환율변동과 함께 지난해의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일본산 및 중국산 시멘트의 수출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국별 비중이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 가운데 일본산의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일본산이 금년에는 85.5%에 달하여 지난해의 73.7%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쉽지 않은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계로 보관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금년의 시멘트 재고추이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431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1,500천톤(수입 800천톤 포함), 수요가 51,600천톤(수출 2,600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전년동월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표-11〉)

마. 수 송

금년 10월까지의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2%가 감소한 42,297천톤으로 이를 수송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박이 17,003천톤을 기록하여 수송우위를 점한 가운데 철도가 13,069천톤, 육송이 12,225천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2〉)

이 가운데 철도의 수송량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1,122천톤(7.9%) 감소하여 해송의 533천톤(3.0%) 줄어든 실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연대간의 협상과정에서 육송의 운송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운임부담이 커져 수송물량 중 일부를 철도로 전환했던 데 따른 통계적 반사 효과로 풀이된다.

금년에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되풀이 되었으나 파업기간은 3일 정도로 단기간에 그쳐 그 영향도 미미했던 반면 철도노조는 최근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 8일간의 강경 파업 투쟁을 하여 파업이전 일평균 1,000량에 이르던 철도수송량이 파업기간에는 10% 수준에 그치는 파행운행으로 인해 시멘트 업계에서는 육송으로 대체운송을 하는 등 동절기 이전의 마지막 성수기 시멘트 수송에 애로를 겪게 되

〈표-11〉 2009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867	1,735	1,287	1,100	1,188	1,363	1,719	1,524	1,600	1,726	1,766	1,561
시멘트	1,467	1,292	1,266	1,035	1,436	1,457	1,423	1,471	1,193	1,431	1,248	1,320

* 주 : 12월은 추정

〈표-12〉 연도별·수단별 수송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0월	
						전년대비
철도운송	14,741 (30.1)	15,182 (29.7)	16,048 (29.6)	17,161 (31.6)	13,069 (30.9)	92.1
육상운송	15,361 (31.4)	15,494 (30.4)	17,290 (31.8)	15,699 (29.0)	12,225 (28.9)	94.8
해상운송	18,874 (38.5)	20,361 (39.9)	20,968 (38.6)	21,366 (39.4)	17,003 (40.2)	97.0
합 계	48,976	51,037	54,306	54,226	42,297	94.8

* 주 : ()는 수송분담비

있으나 여전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어 우려가 되는 바이다.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는 물류비 절감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내건설 시

장도 민간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경영 호전에 따른 물류기지 및 수송설비에 대한 투자 증가는 기대키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시사 용어 해설 ◀◀◀◀◀◀

▶ 키코(KIKO)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 놓고 환율이 구간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권유에 따라 2007년말부터 2008년초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환율 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이 가입했는데, 2008년 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 몇몇 업체들은 은행측의 잘못된 권유로 가입했다는 점을 내세워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키코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는 올해 6월말 현재 2,533억원에 달한다.